

이화동창회보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 OF SO. CA NEWSLETTER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2013년 11월

발행 김정순 / 편집 김영강

회장 인사말

풍성한 가을,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며 이화의 모든 동문님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올해 남가주동창회 60주년을 맞이하며 초청된 본교 이화발레앙상블의 발레 <메시아> 공연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문님들과 교회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김정순 (간호75)

무엇보다 기도와 물질로 크게 후원하시며 앞장서신 선교부와 물질은 물론 몸으로 공연장 질서를 잡아 주신 건미회, 각 동창 모임들, 이사님들, 수고를 다한 임원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이 선교와 장학에 위하여 사용하게 됨은 참으로 의미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9월 김선옥 총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격려와 동창회 60주년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수고와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기리기 위하여 동창회 60년사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말 정기총회 및 크리스마스 파티에 꼭 오셔서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인사말

3년의 임기를 끝내면서 저는 사랑하는 이화 모교를 위해 내 삶에 작은 점 하나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삶 가운데 참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우리 동창회를 도우며 응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후배님들의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박화자 (간호 66)

우리 해외 이화인들은 이화정신으로 이민 생활의 pioneer가 되었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전 세계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메시아 공연 때에는 이천 명이 넘는 관객이 참여해주어, 동문들의 열정과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다면, 번영하는 이화의 모습을 우리의 아들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며, 세계의 이화인들과 함께 모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한 동창회 회장과 임원들, 이사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창 여러분, 다음 동창회를 이끌어 갈 이사장과 회장을 열심히 격려해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정기총회 및 크리스마스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가주동창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며 정기총회 및 크리스마스 파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게임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흥겨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저녁 5 : 00

장소 : Sheraton Hotel Down Town Los Angeles

711 S. Hope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회비 : 개인 \$70, 부부 \$130

* 11월 20일까지 선불하시는 분은 개인 \$60 입니다. 아래 동창회 주소로 Check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정순 회장(714-606-9956). 양이신 총무(949-243-4686)에게 연락 주십시오.

E.W.U.A.A 동창회 주소안내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
E-mail: ewha.alum.sc@gmail.com

본교 소식

이화 창립 127주년 기념식 개최



본교는 5월 31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2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김선욱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이화의 역사는 관습적 도덕이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 여성이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해왔다. 이제 이화는 여성적 가치를

를 기치로 세계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127년 이화 역사가 주는 현재적 교훈” 이라고 말했다.

제 8회 이화 하버드 섬머스쿨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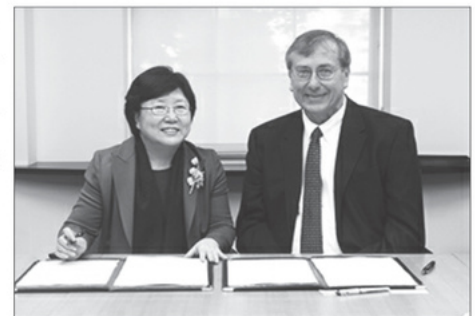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하버드 대학 공동 하기대학 프로그램인 이화-하버드 썸머 스쿨이 8월 2일, LG 컨벤션 홀에서 폐회식을 갖고 6주간의 교육 일정을 마쳤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이화-하버드 썸머 스쿨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하는 2013 이화-하버드 학생 다큐멘터리 페스티벌과 수료식이 함께 개최됐다.

김선욱 총장, UC Irvine, 북유럽권 대학, 벨기에 술베이그룹, 예일대, 코넬대 방문



김선욱 총장은 9월 26일, 미국 UC 어바인 대학을 방문해 교수와 학생은 물론, 보다 다양한 영역에 학술 연구의 파트너로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6월 20일부터 열흘간은 독일 및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방문, 한독포럼 참가 및 지역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로서 본교의 역량을 확인했으며, 10월 9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술베이 그룹 본사에서 열린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학술 국제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예일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피터 셀로베이 제 23대 총장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어 참석했고, 10월 22일에는 미국 코넬 대학과 교류 협정을 갖고, 교수진의 교류와 연구·학술 자료 교환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김선욱 총장이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북미지역 교류 확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및 국제재단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에 이루어졌다.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최종 결과, 본교 총 33억 5700만 원 지원받아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지원 대학 선정 결과, 본교가 총 33억 57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교육부가 교육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립수도권 대형 대학 지원 액수 10위까지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인하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숭실대, 연세대, 숙명여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창회 소식

남가주동창회 60돌 기념, 발레 <메시아> 초청공연



남가주동창회는 지난 4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4월 27일 (토) 오후 7시에 LA 소재 월서이벨극장에서 발레 <메시아>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이 공연은 동창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한국으로부터 “이화발레 앙상블”을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이화발레 앙상블”은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신은경 교수가 안무와 총 예술 감독을 맡고 있으며 무용수들은 이화여대 무용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LA 공연에는 26명의 무용수들이 참여했다. 이번 공연은 예수의 생애가 감동 가득히 엮어져 화려한 조명, 무대 배경과 함께 출연진들의 온몸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무용예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발레 <메시아>는 2003년 초연 이후, 국내에서, 그리고 뉴욕, 뉴저지, 보스턴 등을 순회하며 수차례 공연했고, 그 이후 작품의 내용과 안무 구성이 많이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LA 공연은 그 열 번째가 된다.

발레 <메시아>는 양일간에 걸쳐 2000여 명의 관객들이 대거 참여하여 객석을 꽉 채울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다. 수익금은 선교와 장학 사업에 사용될 것이며, 특히 타민족 대학생을 선정하여 이화여대 국제여름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학비, 여행경비 및 모든 체재비를 지급하는 데에도 쓰일 예정이다.

4월 28일 저녁에는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출연진과 스태프들, 그리고 동창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만찬을 같이 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두들 감동의 <메시아> 발레 공연에 큰 박수를 보냈으며, 특히 한 명의 출연자가 여러 배역을 소화해야 했기에 그 노고를 치하했다. 그리고 “이화발레앙상블” 단원들은, 이 공연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모든 진행을 성공리에 끝낸 남가주동창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공연은 우리 동창이 하나가 되어 이화인의 저력을 널리 알리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

장학생들과의 만남

6월 19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지난 4월 개최된 발레 <메시아> 초청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본교 여름학교에 참가할 장학생으로 선정된 두 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수여자는 Sonia Melendrez (C.S.U.L.B., Psychology 전공, 3학년), Janet Linares (C.S.U.L.B., Biology 전공, 3학년)이며, 이들은 히스패닉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선정되었다. 이 자리에는 이 사장을 비롯하여 회장, 부회장, 장학위원 등 5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8월 5일에는 동창회 임원들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장학생들이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소장실에서 만났다. 이들은 동창회의 도움으로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화인들의 사랑에 거듭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그 체험과 감사의 글을 동창회에 제출했다.



2013년도 장학금 신청

- 1) 대상: 고등학교 12학년-대학 4학년
- 2) 학업성적 증명서 (GPA 3.0 이상)
- 3) 신청서와 에세이
- 4) 이화여대 졸업생의 직계자녀에 한하며, 남가주동창회 회원으로의 의무를 최근 2년 이상 하신 동문의 자녀. 또한 학위를 위해 남가주에 유학하고 있는 이화 동문.

위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ewha.alum.sc@gmail.com 제출.

문의: 장학위원

김봉덕 (714-305-2028)

고복주 (949-525-8773)

김선옥 총장 환영 모임



9월 27일 이화여대 남가주 동창회는 Los Coyotes Country Club 에서 본교 김선옥 총장님을 모시고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김정순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환영회는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했으며, 이수훈 목사의 기도, 교가제창, 박화자 이사장의 환영사, 김선옥 총장의 인사말로 진행됐다. 김선옥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127주년을 맞은 이화여대가 국제사회 속에서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미래의 리더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 여성교육의 HUB인 이화를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많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참석한 동문들에게 알렸다. 이번 LA 출장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UCI 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것과 앞으로 서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타국에서도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며 이화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동창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화 챔버콰이어" 환영 모임



동창회는 7월 22일, 저녁 7시 엘에이 소재 신원 식당에서, 남가주를 방문한 본교 "이화 챔버콰이어" 환영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동문 15명과 합창단원 25명이 참석하였다. 박신화 교수의 지휘로 이화여대 재학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이화 챔버콰이어"는 몬타나 주에서 열린 국제합창페스티벌에 참여한 후, 순회공연 중에 엘에이를 방문했으며 환영회 하루 앞선 7월 21일에는 '선한 목자 장로교회'에서 공연한 바 있다.

본교 입학 설명회에 임원들 참석

4월 17일 엘에이 소재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본교 및 6개 대학이 참여한 미주지역 공동입학설명회에 임원들이 참석했다. 본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입학설명회는 약 150여 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참석하여, 각 대학의 소개와 입학요강을 듣고 관심 있는 대학의 관계자와 부모자녀가 함께 상담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특히 본교와의 상담자가 가장 많아 이화여대의 인기를 짐작할 만했다. 또한 임원들은 본교의 김정선 입학처장 및 실무자들과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담소를 나누었다.

연세대학교 전미주 동창회에 임원진 참석



8월 10일 저녁 5시 30분, 박화자 이사장, 김정순 회장, 장경해 부회장이 Sheraton Hotel Downtown LA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전미주 동창회에 참석했다. 연세대학 장갑연 총장 및 고려대학 임원들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여러 대학 동창회가 함께 모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거론되었다.

서현숙 동문(의대) 환영회에 임원들 참석



5월 25일, 엘에이 소재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서현숙 동문(목동병원 의료원장) 환영회에 회장, 이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북미주의과대학 동창회가 주최한 이 자리에서는 모교의 1200 베드, 새 병원 건립 설명이 있었고, 김포공항 근처 마곡에 13,000평의 부지를 이미 매입했음을 밝히고 이 모금운동에 미주 동창들도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배계자(의대 66) 동문의 박 에스더상 시상식도 함께 거행되어 동문 및 친지 45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회

차기 회장에 장계원 동문, 이사장에 김주경 동문



하반기 정기이사회(이사장 박화자)가 9월 12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사 23 명이 참석했고, 동양순(영문 44) 동문의 기도로 시작하여, 문금숙(국문 63) 동문의 회의록 보고, 김주경 동문의 이사회 회계보고, 김정순 회장의 동창회 사업보고와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회칙개정을 위한 위촉위원의 구성이 주안건으로 채택되었다.

2014년 신임 회장에는 장계원 동문(도서 76), 이사장에는 김주경 동문(관현 77)이 각각 선출되었고, 염정자(영문 60) 동문, 박신화(기독 70) 동문이 새 이사로 영입되었다.

임원회

이번 회기에는 5월 17일과 9월 4일, 부에나 팍 소재 사간 카페에서 김정순 회장, 박화자 이사장 등 15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회, 제 5회 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회계보고에 이어 동창회 회칙개정, 동창회 60년사의 독립적 운영 및 운영위원 선정 등이 이사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골프 대회는 내년 봄에 개최, 북미주지회연합회 참석,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정기총회 및 연말파티는 12월 8일 일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발레 <메시아> 공연의 회계보고와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했다.



2013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남가주지회에서 22명 참석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워싱턴 디씨에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총 2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본 동창회에서는 22명이 참석하여 총 38개 지회 중 최다수를 차지했다. 탈렌트 쇼 경연에서는 화려한 의상과 유연한 동작으로 하와이안 댄스를 선보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나리 동문이 2부를 진행했다.

10월 24일 저녁에 정기이사회가 있었고, 2014년도 북미주지회연합회의 개최지로서 샌프란시스코를 확정 공포하였다.

10월 25일 저녁, 총장님과의 만찬에서 모교의 최근 발전과 미래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국제재단은 현재까지 장학금 원금 총액을 발표하고, 올해 모교



이화에 사십오만불 이상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10월 26일 아침에 정기총회와 각지회의 사업보고가 있었는데 남가주는 올해 동창회 창립 60주년으로 모교의 이화발레앙상블을 초대하여, 발레 <메시아>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북미주 총동창회와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었고, 저녁만찬에서는 다양한 음악 연주와 탈렌트 쇼 경연이 있었다. 그외에도 동문들은 이들 동안 여러가지 강연과 당일 여행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었다.

10월 27일 아침에 총장님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많은 동창들이 질문과 건의를 했다. 이어서 김모세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 동문들은 내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자고 다짐하며 아쉽게 헤어졌다.

선교부



남가주 동창회 선교부가 발족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모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이숙현 전 회장께도 감사하는 바입니다. 저희 선교부는 매주 수요일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모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할 동문들을 위하여 선교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선교부장 조남화 드림 (310-838-6606)

합창부



남가주 이대합창단은 오랜 방학을 끝내고 지휘에 장진영, 단장에 장경해(피아노 75) 동문이 각각 새로 임명되어 지난 10월 4일부터 연습을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동양선교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2014년 5월 4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있을 제 10회 정기연주회를 위해 연습하고 있다.

장경해 단장: 909-821-2477 lindaagent@aol.com

이음회



이음회는 9월 10일 Buena Park에 있는 7th Home Cafe에서 모임을 가졌다. 주요 안건은 2014년, 조출한 음악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들은 7월 27일에 열린 정은옥(관현악 72) 동문의 바이올린 독주회에, 9월 27일에는 엄인용(성악 72) 동문이 지휘하는 살롬여성합창단 제 23회 정기연주회에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특히 살롬합창단은 이영희(무용과 68) 단장을 비롯하여 여러 동문들이 합창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호대학

지난 6월 8일에 간호대 연례행사인 야유회를 토랜스에 있는 Wilson Park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15명의 동창들과 이화의 사위 5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메시아 공연>에는 간호대 동창들이 약 \$7000의 후원금을 지원했고, 9월 27일 남가주를 방문하신 김선옥 총장님과의 모임에는 4명의 간호대 동문이 참석했다. 내년 1월 18일(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제 3회 선후배 오찬회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가질 예정이다.

김혜숙 회장: 310-371-9910 hea.kim888@yahoo.com

녹미회

녹미회 회원들은 7월 16일 미대 제 1회 졸업생이신 김순련 동문의 장례식에 참석, 근조화환을 드렸다.

녹미회작품전은 내년에 열기로 결정했다.

건미회

건미회는 지난 4월 본교의 이화양상블 발레 <메시아> 초청공연에 모든 회원들이 합심하여 전적으로 행사진행을 맡아 도우며 큰 활약을 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매 번 모임에



참석하여 발레 <메시아>공연을 위해서 세부적인 일을 분담하여 발로 뛰는 수고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2월에는 싱싱한 던지네스 계집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10월에는 L.A 인근의 Canyon Park으로 가을 산행을 다녀왔다. 올해의 마지막 모임으로는 1박 2일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건미회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O. C. 이대배꽃모임



이대배꽃모임 회원들은 3월 30일에는 Descanso Garden에서 봄나들이를 가졌으며, 10월 26일에는 Huntington Library에서 가을나들이를 가졌다. 1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그리고 예술품 등을 감상하며 상쾌한 하루를 보냈다. 배꽃모임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오 12시에 모인다.

회장 임영희(간호 68) : 949-387-1105 / 949-310-7294

동창근황

정춘자 (약대 60)

정 동창이 2013년 Garden Grove Chamber of Commerce Women's Division Silver Spoon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가든그로브 시에서 수여하는 봉사상이다. 정 동창은 2000년 물방울 선교부를 설립하여 Heaven Family Mission의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단체를 통하여 양로 병원 방문, 탈북자 도움, 장학금 마련 등에 동참하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문학 21”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고, 2010년 1월에는 시집 『창가에 기대선 장미』를 출간한 바 있다.



이영강 (국문 66 / 미국명 김영강)

미주에서 소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동창이 2013년 제 15회 해외문학상 소설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돈.돈.돈.”으로 이중학 심사위원은 “문장의 배열과 공간 처리가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소설가의 해안으로 잘못된 세상을 고발하고 재단하는 결말이 이채롭다.”고 평했다. 1972년 도미하여 오랫동안 한국학교에서 2세 교육에 종사해온 이 동창은 교사대학, 교사연수회 등 각 세미나에 “Sat II 한국어” 강사로도 참여했다.



저서 : 재미작가 5인 동인집 『참 좋다』, 소설집 『가시꽃 향기』, 장편소설 『침묵의 메아리』, 그외 한국학교 교재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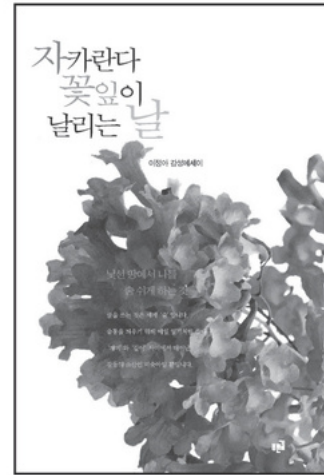
박영신 (영문 71 / 미국명 김영신)

미주에서 도예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 동창이 미국 플러튼 / 한국용인 분청도자기 교류전시회를 준비하여 6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플러튼 수목원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한국 용인의 경기도 박물관에서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출품한 작가는 30여 명으로 선생과 제자가 함께 참여했다. 박 동창의 몇 작품은 AMOCA 박물관 (399 N. Garey Ave., Pomona)에서 12월 29일까지 전시한다.



임정아 (가정 77년 / 미국명 이정아)

임 동창이 수필집 『자카란다 꽃잎이 날리는 날』을 출간했다. 이 책은 『낮선 숲을 지나며』와 『선물』에 이은 세 번째 수필집이다. 모두 57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는데, 최근에 고통스런 투병의 시련을 겪



으면서 어렵게 써낸 7편의 글도 포함됐다. 진솔한 가족상, 이민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감수성, 풍부한 언어, 주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인간애 등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수필집은 저자 특유의 구어체이면서도 간결미가 뛰어나 쉽게 읽힌다. 때로는 폭소를 터뜨리게 하며, 과거의 추억이나 그리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뿌리내린 현재 이곳의 이야기가 삶의 진정성 속에 녹아 있다.

임 동창은 미주한국일보 여성 칼럼 “세상사는 이야기” 미주중앙일보 칼럼 “이 아침에”를 오랫동안 집필했고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심사위원, 피오피코 도서관 후원 회장,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외한국수필문학상, 미주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임 동창은 2012년 조경희문학상 해외작가상을 수상했다. 조경희문학상은 2005년에 작고한 수필가 월당 조경희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고 해외작가상은 2011년에 제정되었다. 조경희수필가는 1939년 이화여전 문과를 졸업했다.

박경희 (섬예 78 / 미국명 김박경희)

박 동문이 지난 6월, 팍뷰 갤러리에서 개최된 LA 민화특별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문자도 액자 두 점”으로 이 상은 한국민화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김민자 (피아노 78 / 미국명 이제인)

김 동문이 지난 9월, 본국에서 개최된 제 6회 전국민화공모전에서 “책가도 8쪽 병풍”으로 특선의 영광을 안았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전시되었고, 또한 성기순 (섬예 69) 동문이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 미주의 민화 위상에 크게 기여했다.



2013년 회비납부와 후원금 현황

(2013년 10월 15일)

동창회비

고복주(생물 70)	성기순(섬예 69)	장계원(도서 76)
고은주(영문 61)	송은섭(정외 57)	장명주(의학 77)
김강주(사생 75)	송정현(교육 57)	장영순(경영 69)
김정숙(정외 55)	송청자(약학 66)	장지매(기독 63)
김남연(화학 87)	심명주(사사 86)	장호선(신방 80)
김봉덕(체육 60)	안성옥(가정 61)	전덕희(화학 79)
김선영(법학 65)	안혜숙(간호 74)	전수연(식영 92)
김성숙(간호 85)	양근향(과교 86)	정원혜(성악 83)
김성심(작곡 71)	양이신(제약 83)	정은옥(기악 72)
김순배(간호 73)	엄선임(교심 69)	정태숙(교육 61)
김승자(약학 69)	엄인용(종교음72)	정현숙(체육 87)
김영강(국문 66)	염정자(영문 60)	정혜자(체육 66)
김옥이(간호 74)	왕문의(약학 77)	조경배(성악 72)
김이녕(간호 62)	우혜영(도서 80)	조남화(간호 63)
김정순(간호 75)	원순일(성악 85)	조은미(피아노82)
김정자(수학 66)	윤수현(조소 68)	지인혜(피아노71)
김주경(관현악77)	윤옥자(교육 57)	차옥희(간호 60)
김진현(체육 49)	이 선(교심 82)	최미나(사생 70)
김천영(영문 64)	이명희(체육 71)	최애리(무용 77)
김춘화(생물 85)	이보경(생미 80)	최용순(서양화77)
김현옥(피아노75)	이복형(체육 61)	최유식(간호 68)
김혜숙(간호 72)	이복희(교육 68)	최정옥(화학 78)
나은숙(의직 85)	이숙현(가정 67)	최혜령(건교 81)
노영선(간호 72)	이순희(의학 71)	최혜숙(간호 72)
동양순(영문 44)	이승자(체육 65)	추경아(영문 89)
문인순(생미 68)	이영애(성악 57)	하명숙(체육 66)
민영숙(간호 73)	이영주(사학 65)	한명남(간호 73)
박경숙(가정 60)	이영희(간호 68)	한나리(체육 92)
박경숙(성악 76)	이은구(물리 72)	한영숙(영문 60)
박경희(섬예 78)	이인숙(정외 74)	한옥주(간호 76)
박광순(기문 64)	이장연(간호 61)	한현숙(국문 75)
박만혜(사회 62)	이정수(무용 77)	허영자(국문 65)
박일선(간호 71)	이정인(법학 75)	홍정순(간호 73)
박주영(관현악81)	이정자(사회 62)	
박화자(간호 66)	이혜진(사학 78)	
배미혜(섬예 73)	이혜진(건교 81)	
백정옥(생물 88)	임성숙(물리 81)	
서정란(국문 71)	임진숙(수학 82)	
서효숙(체육 67)	장경해(피아노75)	

이사회비

고복주(생물 70)
고은주(영문 61)
김정숙(정외 55)
김봉덕(체육 60)
김영교(영문 63)
김정순(간호 75)
김주경(관현 77)
김진현(체육 49)
동양순(영문 44)
박화자(간호 66)
송은섭(정외 57)
송정현(교육 57)
안성옥(가정 61)
윤수현(조소 68)
윤옥자(교육 57)
이숙현(가정 67)
장경해(피아노75)
장계원(도서 76)
정금숙(국문 63)
정매인(성악 60)
정현숙(체육 87)
하명숙(체육 66)

임원활동 후원

강신화(시교 90)
고복주(생물 70)
고은주(영문 61)
김강주(사생 75)
김민자(피아노78)
김봉덕(체육 60)
김정순(간호 75)
김주경(관현악77)
김진현(체육 49)
김혜숙(간호 72)
노복실(의직 71)
동양순(영문 44)
박정순(의학 62)
박홍자(교심 67)

박화자(간호 66)
서성애(제약 75)
송은섭(정외 57)
송정현(교육 57)
신명재(약학 74)
심명주(사사 86)
안성옥(가정 61)
안영숙(간호 75)
양근향(과교 86)
양이신(제약 83)
양정남(간호 60)
양희순(화학 76)
염정자(영문 60)
윤수현(조소 68)
이보경(생미 80)
이수훈(화학 59)
이숙현(가정 67)
이승자(체육 65)
이영희(간호 68)
이정인(법학 75)
이혜진(건교 81)
장경해(피아노75)
장계원(도서관76)
정태숙(교육 61)
정현숙(체육 87)
조은미(피아노82)
주영숙(약학 72)
최애리(무용 77)
최용순(서양화77)
최정옥(화학 78)
최혜령(건교 81)
추경아(영문 89)
한혜숙(사회 68)

메시아후원자

무명
고복주(생물 70)
고은주(영문 61)
김민자(피아노78)
김봉덕(체육 60)
김부자(교육 61)
김영강(국문 66)
김영교(영문 63)

김영순(간호 73)
김원숙(작곡 69)
김정순(간호 75)
김주경(관현 77)
김준희(영문 60)
김진현(체육 49)
노정숙(신방 69)
동양순(영문 44)
문인순(생미 68)
민문자(체육 63)
민영숙(간호 73)
박광순(기문 64)
박미경(정외 97)
박화자(간호 66)
송 명(간호 61)
송은섭(정외 57)
송정현(교육 57)
수 양(사범 80)
안성옥(가정 61)
양근향(과교 86)
양정남(간호 60)
오은영(경영 71)
윤수현(조소 68)
이 선(교심 82)
이승자(체육 65)
이영희(간호 68)
이혜진(건교 81)
임성숙(물리 81)
장경해(피아노75)
장계원(도서 76)
장명주(의학 77)
정매인(성악 60)
정태숙(교육 61)
최미나(사생 70)
최성은(동양화79)
추경아(영문 89)
탁수정(무용 67)
한나리(체육 92)
한영숙(영문 60)
간호대
건미회
선교부
이음회
OC 이대배꽃모임
이화보컬앙상블

회비 납부는 아래의 PO Box로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회계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Payable to : EWUAA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

회계: 양이신(제약 83), 전화 : (949) 243-4686, e-mail : yeeshin@hanmail.net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P.O. Box 5164, Cerritos, CA 90703-5164